

세계의 장수국을 찾아서

자연과 동물이 어우러진 야생의 낙원

케냐 '마사이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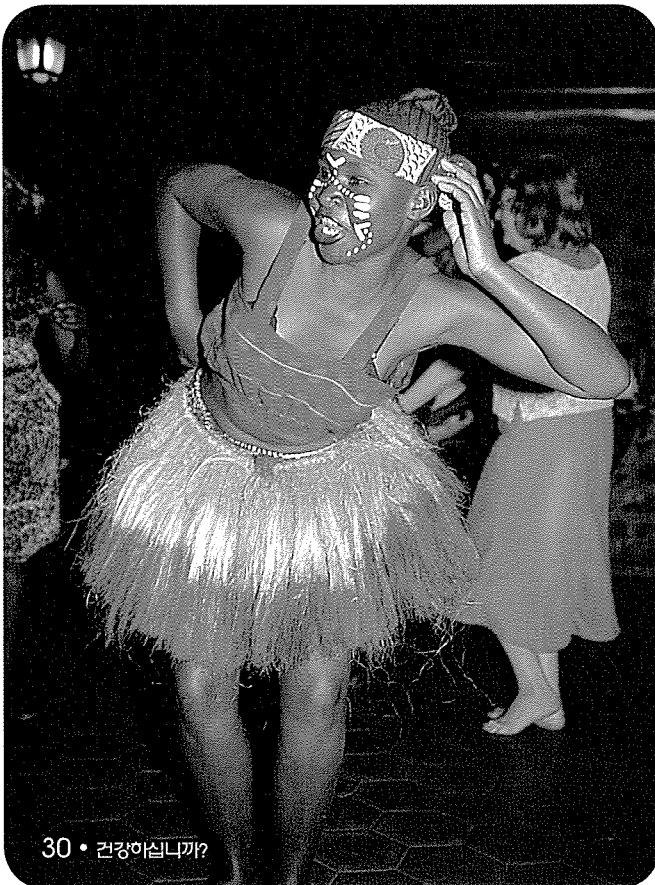
글 · 사진/허용선(건강칼럼니스트)

아 아프리카 중서부 적도 바로 밑에 위치한 동물의 왕국 케냐는 모든 것이 뜨겁게 살아 있다. 강렬한 햇빛, 눈부신 만년설, 이색적인 열대 고산식물이 찬연한 세계적 영봉 킬리만자로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홍학의 군무, 하마들의 행진이 원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또한 원주민들의 풋풋한 인정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마사이족은 동북부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지대의 용맹한 원주민들로, 유목민족인 이들은 북아프리카에서 나일강과 초원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해 19세기 말엽에는 지금의 케냐 일대를 무대로 번성했다. 그러나 20세기 초부터는 현재의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지대 초원으로 밀려 나 이곳을 터전으로 유목생활을 하며 살아 가고 있다. 마사이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남서쪽으로 260km 떨어진 마

사이마라 동물보호구역과 남동쪽으로 230km 거리에 위치한 암보셀리 국립공원 일대다. 초원에서는 수십 마리의 소와 양떼를 몰고다니는 붉은 망토 차림의 마사이족을 쉽게 볼 수 있다.

마사이족은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문화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경사스런 날 성대한 축제를 벌이는데 대개 다른 부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거나 소년들이 신장자 전사계급인 '모란(Moran)'이 되었을 때, 그리고 소년들이 할례 수술을 받고 회복해 갈 무렵에 열린다. 축제 때 자주 등장하는 춤으로는 '아두무(adumu)'라 불리는 마사이족의 뿔뿔기춤이 있다. 이는 노래와 동시에 추는 춤으로 소떼의 습격, 전쟁,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의 일화를 회상하게 한다. 모란이 되면 마사이족 남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가사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부족과 마을에 일이 생기면 소집되어 전사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 고유의 민속춤을 추는 케냐의 원주민 여성.

▶ 케냐에선 8가지 야생동물의 고기를 부위별로 구워 먹는 요리가 발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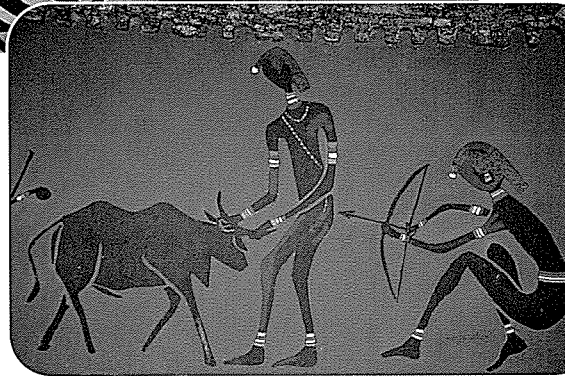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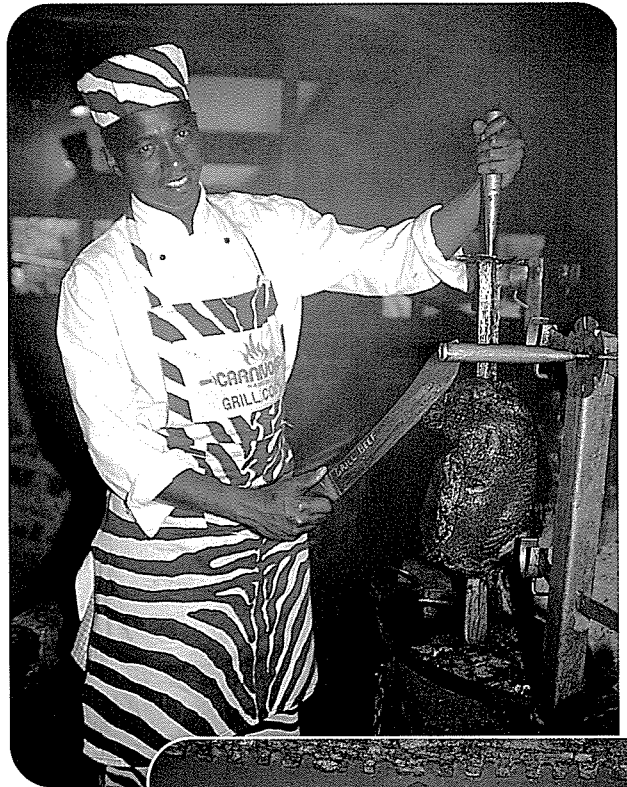
사자를 때려잡은 용맹스런 남성은 그날 밤 축하하는 모임에 참석한 소녀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골라잡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마사이족 여성들은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몸에 화려한 장신구를 걸치고 마을 광장에 모인다. 함께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보통 한 줄로 길게 늘어선 공연을 한다. 할례가 끝난 소녀를 위한 행사인 경우에는 다산을 상징하는 무지개 껍질로 만든 독특한 머리장식을 달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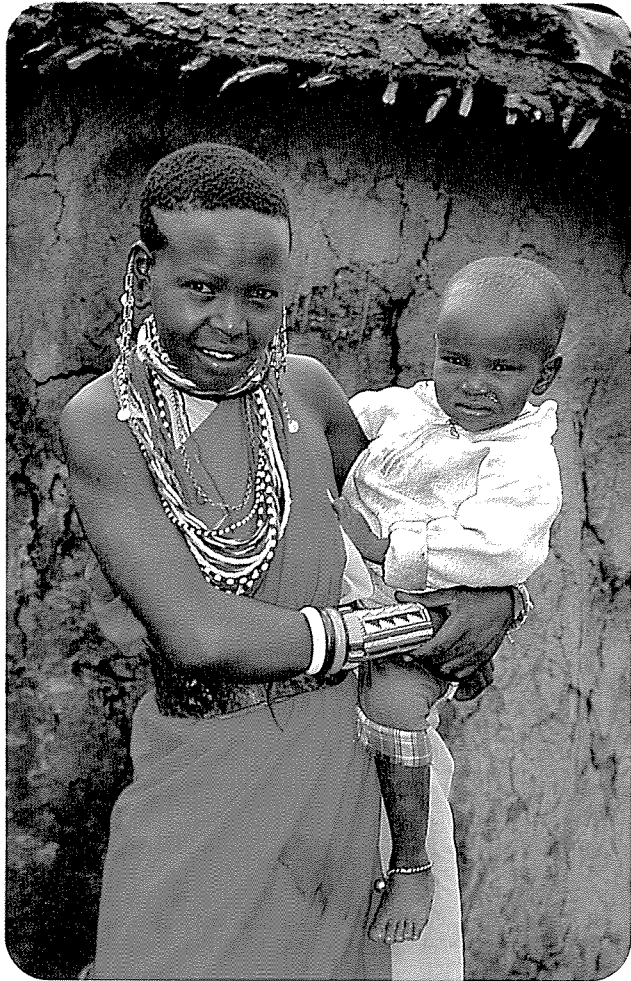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에 있는 마사이족 마을을 찾았을 때 마사이족 남녀들이 차례대로 나와 환영의 춤을 추었는데, 남자들이 순서대로 팔씩팔씩 땅을 차고 높이 뛰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나서 마사이족 집 가까이로 들어가보았을 때 이상한 냄새와 함께 발 밑이 폭신해서 자세히 보니 사방에 소똥이 겹겹이 깔려 있었다.

마사이족 남자들은 줄무늬가 있는 두꺼운 천을 어깨에 두르고 양쪽 끝을 묶어서 걸친 차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가족들을 보호하듯 뒤쪽에 서 있었는데 모두가 한 손에 기다란 막대기로 땅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단단한 나무로 깎은 사냥용 투구를 들고 있었다. 여자들은 화려한 빛깔의 옷과 구슬에 문양을 새긴 목걸이와 팔찌, 귀걸이 등을 달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모두 귀에 커다란 구멍을 내서 끈들이 마치 둥그런 귀걸이처럼 길게 아래로 달려 있는 점이다. 몸을 굽혀야 겨우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움막 안은 무척 캄캄했고 어둠 속에서 더듬어본 살림은 부뚜막 위에 놓인 강통 같은 그릇 두세 개가 전부였다. 마사이족에게 행복은 문명을 거부하고 조상 대대로의 금지와 전통을 이어가며 살아가는 것인 모양이다.

마사이족은 전통에 따라 가축을 주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상의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간다. 마사이족에게 땅을 파헤치는 행위는 죄악이며 신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다. 이와 같은 마사이족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앙은 그들의 의식주 생활 전반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그들은 신앙에 따라 곡류를 먹지 않고 농사



▲ 마사이족 사람들은 가축의 우유와 피를 섞은 것을 즐겨 마신다. 또한 사냥하여 잡은 동물의 고기도 부족이 모여 먹는다.



◀ 토담으로 지은 마사이족 집앞에 선 母子의 모습. 어머니는 화려한 빛깔의 옷과 목걸이·팔찌 등을 달고 있다.

도 짓지 않는 것은 물론 매장 풍속도 찾아볼 수 없다. 시체를 황야에 버려둔 채 짐승의 밥이 되게 할 뿐이다. 마사이가 우물을 파지 않는 것도 땅에 대한 숭배에서 비롯된다.

마사이족은 지금도 샘물이나 시냇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케냐 정부가 그들을 위해 파준 우물도 좀처럼 이용하지 않는다. 가축에 의지해 살도록 운명지어졌다는 믿음 때문에 식생활도 소의 피와 우유,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데, 소의 목 부위 정맥을 가까이서 활로 썬 뒤 그 피를 마신다. 소의 피는 땀은 직후 따뜻할 때 마시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유를 섞어 만든 '사로이'를 주로 마신다. 고기를 먹을 때는 절대 우유를 함께 마시지 않는 것도 독특한 풍속이다.

마사이족이 많이 살고 있는 마사이라 국립공원은 케냐에서 가장 많은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이다. 울릉도의 두 배가 넘는 드넓은 사바나(초원지대)에는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차로 이동하다 보면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있고 이따금씩 관목숲으로 우거진 곳이 있는가 하면 호수나 강도 볼 수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초원에서는 얼룩

말, 기린, 영양, 하이에나, 누 같은 온순한 초식동물이 무리지어 살고 있다. 마사이라 국립공원은 이웃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어 갖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두 공원을 오가며 살아간다. 다양한 지형이 펼쳐져 있는 마사이라 국립공원은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촬영 현장이기도 하다.

케냐의 끝없이 펼쳐진 초원지대는 수많은 야생동물의 생활공간으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때묻지 않은 자연과 동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낙원처럼 보였다. 72



케냐에서 아름다운 마사이라 국립공원에는 수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한다.